

# 광주 유치원 휴업...맞벌이 부부 진땀

폭설로 광주지역 유치원과 일부 어린이집이 11일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들이 출근길에 진땀을 뺐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 309개에 대한 휴교령을 발령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눈이 5cm 이상 내릴 경우 휴교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광주지역은 지난 10일 오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4.9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 아이 맡기고 출근하느라 지각

### 폭설 때 출근 탄력 운영 필요

유치원은 휴교령에 따라 스쿨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대신 맞벌이 부부 등에게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자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자치단체 소관인 광주지역 어린이집 1240곳은 이날 원장 자율의사에 따라 휴원 여부를 결정했다.

일부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는 대신 눈길로 인해 스쿨버스를 운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등교시킨 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가 진땀을 빼야 했다.

회사원 김모씨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느라 지각을 했다"며 "눈길을 뚫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출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골목길에 눈이 쌓여 있어 유치원 스쿨버스를 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휴업을 결정했다"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돌봄서비스는 제공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러 연쇄살인마, 59명 추가살인 혐의 재판

2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된 전 러시아 경찰관에 대한 새로운 재판이 10일(현지시간) 이르쿠츠크에서 열렸다. 이는 이제까지 밝혀진 22명 외에도 59명을 더 살해했다고 자백한데 따른 것이다.

영국 BBC는 53살의 미하일 포프코프가 1992년부터 2010년 사이 59명을 더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포프코프의 자백이 확인되면 그가 살해한 사람은 80명을 넘어 포프코프는 러시아 최대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된다.

러시아 언론들은 포프코프에게 '늑대인간' '앙가르스크의 미치광이' 등의 별명으로 부르고 있다.

그는 지난 2012년 22명의 여성을 성폭력한 후 살해하고 또다른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2013년 종신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의 범행은 이르쿠츠크 인근 앙가르스크의 자신의 집 또는 집 주변에서 이뤄졌다. 그는 고향인 앙가르스크에서 경찰로 근무하다 1998년 경찰을 그만 두었다. 희생자들은 경찰이었던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여성들이었으며 나이는 16살부터 40살 사이였다. 검찰은 포프코프가 비번 중 순찰차에 여성을 태워다 주겠다고 희생자들에게 제안, 범행 대상자를 골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러시아 최대 연쇄살인 기록은 옛 소련 시절 52명을 살해한 안드레이 차카틸로가 갖고 있었으며 그 뒤는 알렉산더 푸추시킨의 48명이었다. 포프코프의 81명 살해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

## 佛 리츠호텔서 51억원 상당 보석 도난

프랑스 파리 리츠 호텔에 무장강도단이 침입해 40만유로(약 51억2120만원)에 상당하는 보석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다섯 명의 무장강도단이 전날 오후 6시30분경 파리 방돔광장에 위치한 리츠 호텔의 1층 창문을 깨고 보석전시장에 침입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석상의 소장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강도 다섯 명 중 세 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프랑스 보안군이 호텔 주변의 일부 도로를 폐쇄하고 수색에 나서 나머지 두 명을 추적하고 있다.

한 호텔 직원은 AFP통신에 "거리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텔로 피신했고, 강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강도의 침입 후 호텔 뒷길을 따라 달리는 오토바이를 봤다고 전했다.

사법부 소식통에 따르면 파리 검찰은 체포된 무장강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도난당한 보석의 가치는 "최소 40만유로 이상"으로 추정했다.

제리르 콜롱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에 대해 "경찰이 전문성을 발휘했다"면서 경찰을 격려했다.

방돔광장은 호화 호텔과 명품 보석상점 등이 밀집해 강도의 목표물이 되는 지역이다. 지난 2016년에는 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두 명의 강도가 고급 시계 브랜드 '쇼파드' 매장에 침입해 60만유로(약 78억84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40cm 넘는 눈 쌓여

아프리카 대륙 북부의 사하라 사막에 4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지구 온난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 기상청의 로만 빌란드 정장은 9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리는 현상이 갈수록 빈번해 지고 있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알제리 북부 아인세프라 인근의 사하라 사막 지대에는 지난 7일 눈이 내렸다. 40cm정도 쌓였던 눈은 밤사이 모두 녹았지만 기상학자들은 이 현상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하라 사막에는 2016년 12월에도 눈이 내린 바 있다. 1979년 이래 이 지역에 눈이 온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이번에 눈이 온 아인세프라의 경우 연중 최고 기온이 37도, 최저는 -10도까지 떨어진 기록이 있다.

영국 기상청 관계자는 일간 인디펜던트에 "주말 사이 유럽에서 유입된 차가운 공기로 이 지역에 습기가 생기면서 눈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빌란드 정장은 "사하라 사막 눈, 북미의 이상 한파, 러시아의 따뜻한 겨울, 서유럽 폭우나 홍수 같은 현상이 점점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지구 온난화가 극단적인 기후 여건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웅크린 큰고니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온 11일 오후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선소마을 인근 갯벌에 천여기름 201호인 큰고니가 겨울을 나고 있다.

## 한파속 독감환자 6배 ↑...고위험군 예방접종 필수

### A-B형 독감바이러스 이례적 동시 유행

강한 한파속 인플루엔자(독감)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임산부 등 고위험군의 경우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A형과 B형 독감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가운데 독감은 지난달 초 유행주의보가 내려진지 겨우 한 달만에 환자가 6배 가까이 늘었다.

1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 의심환자는 지난해 11월 1000명당 7.7명에서 12월 1000명당 53.6명으로 약 5.9배 증가했다.

특히 이번 독감은 2종류의 독감이 동시에 유행함에 따라 한 종류의 독감에서 적절한 대응과 완치가 됐더라도 다른 종류의 독감에 다시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한 차례 독감에 걸렸던 환자라면 완치가 됐다 해도 신체 기능이나 면

역력이 회복되는데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기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다른 종류의 독감에 쉽게 감염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예년에는 12~1월 사이 A형 독감유행을 시작으로 3~4월에는 B형 독감이 유행하는 것이 패턴이었으나 올해는 독감환자 50% 이상이 B형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A형 독감에 걸려 회복되더라도 B형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바이러스의 백신이 달라 교차면역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흔히 독감은 일반 감기가 증상이 심해지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독감과 감기는 전혀 다른 질환이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을 말한다. 38도 이상의 고열, 오한, 피로감, 몸살, 근육통, 식욕부진 등이 대표적 증상이다. 어린이의 경우 구토와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고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노인이나 소아,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증상에 따라 합병증의 발생확률이 높아지고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독감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이라는 게 보건당국과 의료계의 설명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산부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이 필수다.

예방 접종만 제때 한다면 독감을 80%까지 예방할 수 있다. 만약 독감에 걸린다고 해도 증상이 미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다.

뉴스스

## 전남 해역 저수온 현상 양식생물 피해 주의보

전남 해역이 저수온 현상으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11일 겨울철 한파로 여수와 강진 해역 수온이 4~5도, 목포와 해남 완도 신안 해역수온이 5~6도 내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도 낮아 저수온에 따른 양식생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양식생물은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사료 섭취와 소화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8도 이하에서는 면역력이 약해져 심할 경우 폐사할 수 있다.

특히 농성어, 돌류, 조기, 쥐치, 숭어 등은 저수온에 취약해 주의해야 한다.

양식어가에서는 사료 공급량을 조절하고 비타민제 및 영양제를 공급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한편 저수온에 약한 양식생물은 조기에 출하해야 한다.

또 해상가두리와 축제식 양식장에서는 혹한과 풍파에 대비해 시설물을 안전점검하고 양식장 평균 수심을 3m 이상 유지하며, 수면적의 1% 이상을 별도 구획해 보온덮개를 설치하고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 사육해야 한다.

육상양식장은 폭설에 따른 시설물 붕괴에 대비하고 양식생물이 동사하지 않게 보온덮개, 보일러 등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정전 발생에 대비해 비상발전기 가동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송원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겨울철 폭설 및 저수온으로 양식장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어패류 양식장 월동장비 점검, 어장 관리 및 양식제해보합 작업 등 피해 예방에 철저히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 다들, 안녕하시죠?

우리 날령우요... 양치로 죽어 있습니다.

다들 건강검진으로 조기발견해서 수수도 받고, 이제 개월에 한 번 검사만 받으면 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놀치고 지내, 그래서 잇고 지내 사가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맘을 다시 돌아봅니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임 검진

발생률이 높고 조기진단으로 치료할 수 있는 5대 질환(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에 임할 때는 건강검진에 관한 안내를 꼭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립건강검진센터

1577-1000

**h-well**

국민건강보험

1577-1000